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출범!

- 후보직속기구로 전격 승격, 이재명 후보 직접 상임위원장 맡아 -
- 영호남, 제주 남부권을 세계적 경쟁력 갖춘 ‘메가리전’ 으로 육성 -
- 김대중-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완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월)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유세장에서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는 기존 선대위 산하 <남부경제권위원회>를 <남부수도권 구상> 발표와 함께 전격적으로 후보직속 기구로 승격시키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동위원장으로 김성주(전북), 김승남(전남), 김정호(경남), 박재호(부산), 송갑석(광주), 송재호(제주), 이상현(울산) 등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위원장이 맡고,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대구를 대표한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9명의 경제인들이 대거 임명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장되어 있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남부수도권 구상>을 처음 밝혔다. 이 후보는 “<남부수도권 구상>은 수도권 초과밀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종판이자, 세계5대 강국으로 가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소개하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영호남 지역을 돈과 사람이 몰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후, 영·호남·제주지역 국회의원 35인의 지지선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지지선언이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남부수도권 구상>은 영·호남과 제주를 하나의 초광역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서울수도권과 함께 두 개의 초광역경제권(메가리전:Mega-Region)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로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서울·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려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영호남에 축적된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적 자산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이며 내재적 성장 동력을 갖춘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남부수도권은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 허브로 육성될 것이며, 기존의 제조업 인프라와 혁신적인 미래첨단신산업을 융합해 대만을 능가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전체 GDP 대비 1/3 수준의 GRDP를 최대 절반 가까이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일자리 400만개, 인구 2,400만명, 평균 지역경제성장률 5%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시혜나 배려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곧 G5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김대중정부는 <수도권 동북아중심구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비상의 초석을 만들었고, 노무현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면, 저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대업을 이어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계 5위 국가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우리나라 남부권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남부권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경제발전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체제가 지속되면서, 이곳 남부권은 사회경제적 소외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에 정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전향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성과를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출발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천명한 <남부수도권 구상>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지혜로운 경제성장 전략, 합리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글로벌 경쟁에 대한 시대적 통찰,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구상이자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리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남부권을 독자적인 초광역경제권으로 구성해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동북아 최고의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호남의 시도민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남부수도권 구상>에 대한 적극 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 후보직속기구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출범을 강력 지지합니다.

우리는 남부수도권 구상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남부수도권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경제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뤄낸 전통산업 인프라와 미래형 첨단산업이 조화롭게 구성된 강력한 경쟁력의 ‘메가리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둘째, 남부수도권에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거점도시인 ‘신산업특화수도’를 최소 2곳 이상 건설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창의·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열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의료, 문화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남부수도권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파도 서울로 가고, 일자리 찾기 위해서도 서울로 가야 하는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서울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 인프라를 든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권형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호남의 시·도민 여러분

영·호남·제주를 품은 남부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대전환 시대의 성장엔진’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능가하는 국제금융과 무역, 미래형 첨단산업, 국제관광의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남부수도권 구상>을 완수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서울수도권과 남부수도권 두 개의 성장엔진으로 세계 5강 국가의 염원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발대식 참가자 일동